
두 가지 접근성에 대하여

곽숙영 · 고려대학교 대학원생

독자 접근성

일반인 중에 《새국어생활》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심지어 국어학 전공자 중에도 이 잡지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꽤 있다. 《새국어생활》이 학술 잡지라면 독자 접근성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다. 학술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든 필요한 논문을 찾아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국어생활》은 국민, 적어도 국어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이다. 따라서 《새국어생활》은 독자를 기다리는 잡지가 아니라 독자를 찾아가는 잡지가 되어야 한다.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새국어생활》의 전문을 공개하고, 새로운 호가 발간되었다는 소식을 알리기는 하지만 기존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던 사람을 끌어들이기는 어렵다. 《새국어생활》은 현재의 독자에만 만족할 것인가, 새로운 독자를 늘리기를 원하는가. 후자라면 조금 더 독자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필자 접근성

지금까지 《새국어생활》에 실린 글을 보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쓴 것이 대부분이다. 《새국어생활》은 국어 전문가가 전문적인 내용을 되도록 쉽게 쓴 글을 담는 잡지로 보인다. 즉 지금까지는 필자가 전적으

로 전문가로 한정되어 있다. 이처럼 《새국어생활》의 필자 접근성은 독자 접근성에 비해 훨씬 더 제한적이다.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전문가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일반인에게 더 친숙한 잡지가 되고자 한다면 필자의 진입 장벽을 조금 낮추는 것은 어떨까. 일 년에 네 번 발간되는 《새국어생활》에는 각 호마다 특집 주제가 있다. 주제가 정해지면 학력, 직업, 나이와 상관없이 해당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일반인들의 글을 모집하여 실는 것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